

200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
려는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어떤 계획과
포부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불교지도자들에게 신
년 계획을 들어보았다.

불교지도자들 “새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스님들 정보화 인식 고양

불교정보화협회 회장 현성스님



지난 해 창립된 불교정보화협회의회는
올 한 해 동안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
식 고양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계획이다. 좀더 연구해서 스님
들이 PC 활용과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 생각이다. 불교정보화협회는 인터넷 포교사 양
성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개발 실현함으로
써 불교계 정보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불교학 분류체계 바로 잡을 것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중 교수



올해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다.
학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불교
학 분류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계
획이다. 학진이 내놓은 분류표에 의하면
불교 교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
파불교시대의 아비달마 불교와 한국불교사상 부분이 제외돼 있다.
학회 차원에서는 학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논문
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교리강좌 증설...교육 내실화

부산불교신도회 류진수 회장



신행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사
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체계 확
립을 이끌어 왔던 부산불교신도회 아카
데미 과정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다. 이는 신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신도회 산하 불교자원봉사단 모임을 활성화하고, 미
가입 신행단체의 참여 유도로 신행단체간의 화합과 연대도 강화
할 계획이다.

불교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화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를 불교여성전
문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와 연 1회의 정
기 학술세미나를 열어 불교 여성학자들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불자의 의식
과 신행생활을 알아보는 의식조사를 병행
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불교여성학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현존하
는 지도자급 여성불자 100인을 선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불교여성개발원 회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여성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대중화에도 앞장설 것이다.

군포교 시스템 확립에 매진

군불교위원장 성광스님



올해는 조계종과 사부대중이 함께하
는 군포교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군포
교의 새장을 여는 '군포교비전 21'을 전
개하여 군사질 정보화와 불자들의 정예
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도 배가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범
적인 청년 불자들이 군과 사회로 이어지는 신행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년 뜻있는 불자들이 '1사찰 1군법
당 결연사업'에 보여준 많은 성원과 관심을 올해도 기대한다.

생활불교 실천 위해 더 노력

천대종 중앙신도회 김유혁 회장



새 해는 양피 해에 해당한다. 양은 운
순하며 무리 지어 어울리되 파당을 짓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특징을 군
이부당(群而不黨)이라 한다. 세훈(歲訓)
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생활불교
도로서의 그 보람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해갈 것이다. 특히 새해가 금강대학교 개교원년(開校元年)
이 되는 만큼 석학(碩學)의 가르침을 보다 널리 선양해가기 위한
터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자비의 등달기' 사업 대중화

우리는 선우 박광서 대표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펼친
'자비의 등 달기' 사업을 대중화할 계획
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이
겹치는 올해는 '효(孝)의 등 달기' 캠페
인을 중심으로 펼칠 것이다. 또 지난해
문을 연 결손가정 청소년 쉼터인 그룹홈
'선재동산'을 매년 1개소 씩 개원해, 가정 해체에 따라 일시적 또
는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불교시민운동기들과 복지단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공부와 티베트 인도 지원 사업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지역·지부 지원 시스템 구축

대한불교청년회 정성욱 회장



서로 도와주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 지난해 청년 포럼 및 의제 21
위원회 출범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 데 이
어, 대불청은 가시적으로 지역 지부를 활
성화시킬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중앙 주
도의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부 중심
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앙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
추어 나갈 것이다. 만해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불청
업무 표준화 작업, 전국 사무지국장 및 간사 워크숍 등도 올해 대
불청의 중요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어린이 포교 후원회 결성

불교어린이지도자원 회장 정여스님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단
적 차원은 물론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하
다. 이러한 무관심 극복을 위해 어린이 포
교 후원회 결성을 통해 포교기금을 마련
하고 어린이 법회 교재인 <연꽃>지의 발
행부수를 늘려서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포교를 위해 불교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은 물론 어린이 법회 관련
자료를 재편집해서 자료실을 구성, 공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인천·울산 등 지부창립 지원

전국 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



나누는 삶을 실천하자는 것이 경찰 불
자들의 올해 생활 목표다. 상을 내지 않
으면서 불자답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인천
지부와 울산지부를 올해 내에 창립하고,
전주 강릉 지부의 창설도 적극 지원할 계
획이다. 경찰불교회의 사명은 경승단의 경찰 포교를 위한 디딤
돌,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다. 올 한해도 전·의경 포교의 선도적
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신도회와 통합 마무리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신
도단체로서 대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목
표로 삼았다. 특히 올해에는 재가불자들의
핵심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
국신도회와의 통합을 마무리 지어 재가
불자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
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 기반과 활동력 배가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찰신도회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제
별, 대상별 신도 임원연수를 실시, 견고한 단결력을 형성하는 등
양질의 교육연수를 이어갈 각오이다.

일간지 불교회 창립 적극 유도

언론사불자원 정종철 회장



지난해 10월 창립한 언론사 불자연합
회는 올 한해 언론인 불자들의 우의를 다
지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
로 법회를 열어 불자 언론인들의 상호교
류를 활발히 할 것이다. 또 언론사내 불
교의 저변확대와 타 직장기능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아직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일간신문사의 불
교회 창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언론매체에서 불교외국이나
종교편향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도 앞
장설 것이다.

불교환경연구소 설립 기반확립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출가를 입산(入山)이라고 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산은 모든 이의 귀의처이다. 이
곳에서 우리는 해탈한다. 해탈은 탐진치
의 여원이다. 그런데 자연을 이의 추구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오만함으
로 귀의처는 참담하다. 어느덧 오만함은
우리들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틀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개발
로 인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다. 올 한해, 특히 불교환경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 불자회 결성 추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리아타의 정
신으로 수행정진해 왔다. 7천여 공무원불
자들은 각 기관 불자회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광역시·도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불자회를 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수련법회와 성지순례, 수
계법회 등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불심을 다지는 한편 국민과 지
역주민에게 친절·봉사하는 공무원불자상을 세워 나갈 것이다.

직장·직능별조직 구분 교류 확대

진각종 총금강회 손성섭 회장



새해 개미년을 맞아 총금강회는 지난
해 전국을 순회한 밀교교리대법회를 올
해도 연중기획 행사로 실시하는 한편,
총금강회의 조직도 직장 및 직능별로 구
분해 신도 간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
할 방침이다. 특히 총금강회의 중추조직
이 될 청장년층의 흡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총금강회
에 '젊은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총금강회 사이버 광장을 통해 신도들의 의
견을 수렴, '참여하는 총금강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외포교 전진기지 설립 주력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회장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1월
제3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기획부, 교육
지원부 등 6개 부서와 거주지별 6개 지부
로 개편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150여 회원들의 상호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기본역할인 외국
인 포교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회원들의 인화단
결, 해외포교 전진기지 설립, 외국인대상 법회 개설 등 외국인포
교 기반을 닦아가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 국제포교사회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